

2023. 9. 12.(화)

가치창조팀

2023년 안산지역 소재 기업 추석 명절 실태조사



안산상공회의소

목 차

I . 조사 개요 2

II . 조사 결과 3

1. 추석 명절 휴무 계획 3

2.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 4

3. 변경 예정 외국인력정책 실효성 5

I 조사 개요

□ 조사 목적

- 안산지역 관내 기업의 추석 명절 휴무계획과 변경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의 실효성을 조사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원방안 모색 및 개별기업의 참고자료로 활용

□ 분석 대상

- 안산지역 소재 기업

□ 조사 기간

- 본 조사: 2023년 8월 21일(월) ~ 8월 31일(목), 11일간
- 보완조사: 2023년 9월 1일(금) ~ 9월 4일(월), 4일간

□ 조사 방법

- 팩스, 온라인 조사

□ 조사 내용

- 추석 명절 휴무 계획
- 상여금 지급 계획
- 변경 예정 외국인력정책 실효성

□ 응답 현황

구 분		응 답 수	응답비율
기업 규모	50인 미만	82개사	54.7%
	50인 이상 ~ 100인 미만	32개사	21.3%
	100인 이상	36개사	24.0%
합 계		150개사	100.0%

II

조사 결과

1. 추석 명절 휴무 계획

□ 추석 명절 휴무기간

○ 안산지역 소재 기업의 평균 추석 명절 휴무기간은 5.9일로 나타남.

* 추석 명절 기간: 2023. 9. 28.(목) ~ 10. 3.(화), 6일(토·일요일 포함)

○ 안산지역 소재 기업의 93.3%가 추석 명절 휴무기간을 6일로 계획한다고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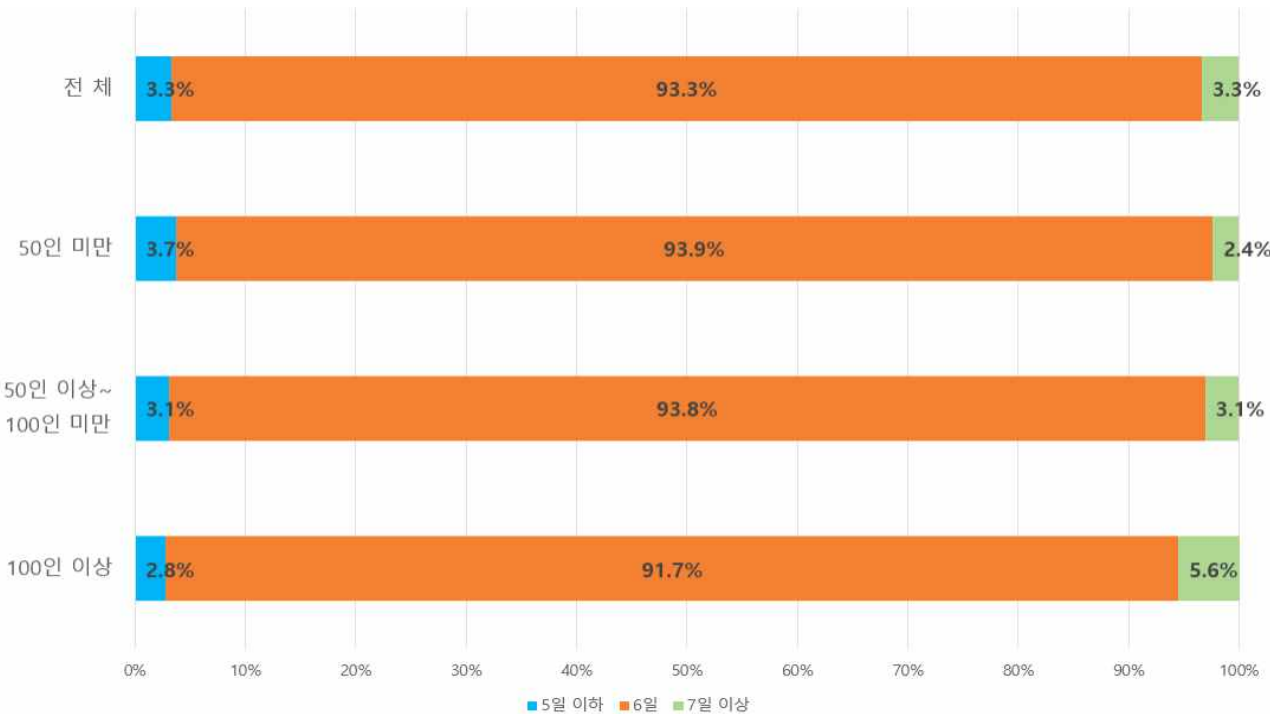
■ 5일 이하 휴무를 계획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.3%로 나타남.

■ 7일 이상 휴무를 계획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.3%로 나타남.

기업 규모별 추석 명절 휴무기간

구 분	5일 이하	6일	7일 이상
전 체	3.3%	93.3%	3.3%
50인 미만	3.7%	93.9%	2.4%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3.1%	93.8%	3.1%
100인 이상	2.8%	91.7%	5.6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

2.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

□ 추석 상여금 지급 형태

- 안산지역 소재 기업 중 추석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40.0%로 전년 대비 5.7% 감소함.
- 정기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24.7%, 별도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15.3%
- 상여금 대신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은 36.0%, 상여금과 선물 모두 지급 예정인 기업은 26.0%

안산지역 소재 기업 추석 상여금 지급 형태

상 여 금				선 물	미지급	미 정
'22년	'23년	정기상여금	별도상여금			
45.1%	40.0%	24.7%	15.3%	72.7%	44.7%	15.3%

※ 선물 지급: 상여금 중복 지급 기업(39개사) 포함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$\pm 0.1\%$ 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- 안산지역 소재 기업 중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44.7%로 나타남.
- 미지급 사유로는 '지급 규정 없음(40.6%)'이 가장 많았으며, 그 외 응답은 '선물 등으로 대체(27.5%)', '연봉에 포함(23.2%)', '재무상태 악화(8.7%)' 순

□ 추석 상여금 지급 수준

- 추석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의 지급 수준으로는 '작년과 동일한 수준(89.8%)'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.
- 작년보다 '많이' 지급 예정인 기업 5.1%, 작년보다 '적게' 지급 예정인 기업 5.1%
- 추석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의 48.3%가 추석 특별상여금을 '기본급의 50% 미만'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.
- '일정금액'의 경우 지급 수준은 평균 250,000원

안산지역 소재 기업 추석 특별상여금 지급 수준

기본급의 50% 미만	기본급의 50% 이상	기본급의 100% 이상	일정금액
48.3%	23.3%	21.7%	6.7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$\pm 0.1\%$ 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- 추석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의 선물 지급 수준은 평균 62,661원으로 나타남.
- * 상여금 중복 지급 기업(39개사) 포함

3. 변경 예정 외국인력정책 실효성

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, 23년도 하반기부터 외국인력정책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, 안산기업을 대상으로 변경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의 실효성을 조사하였습니다.

* 조사대상: 응답기업 중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(92개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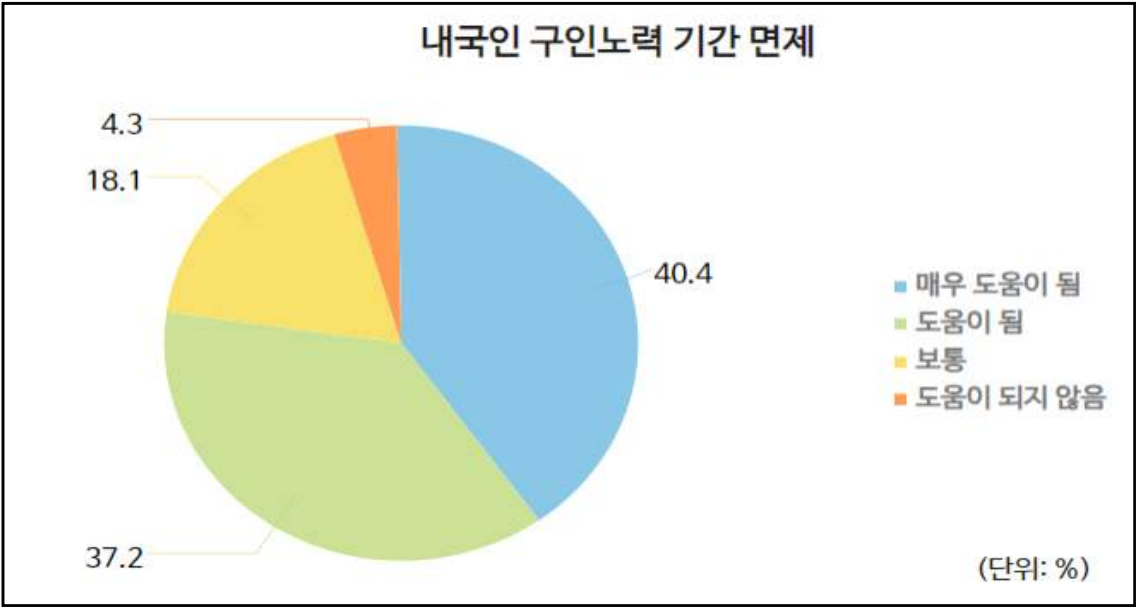
변경 예정 외국인력정책 실효성

구 분	긍정		보통	부정	
	매우 도움이 됨	도움이 됨		도움이 되지 않음	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
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면제	40.4%	37.2%	18.1%	4.3%	-
출국-재입국 절차 폐지	60.6%	36.2%	3.2%	-	-
업종+권역 이동 제한	33.0%	41.5%	19.1%	5.3%	1.1%
숙소비 지역 시세 반영	12.8%	45.7%	38.3%	3.2%	-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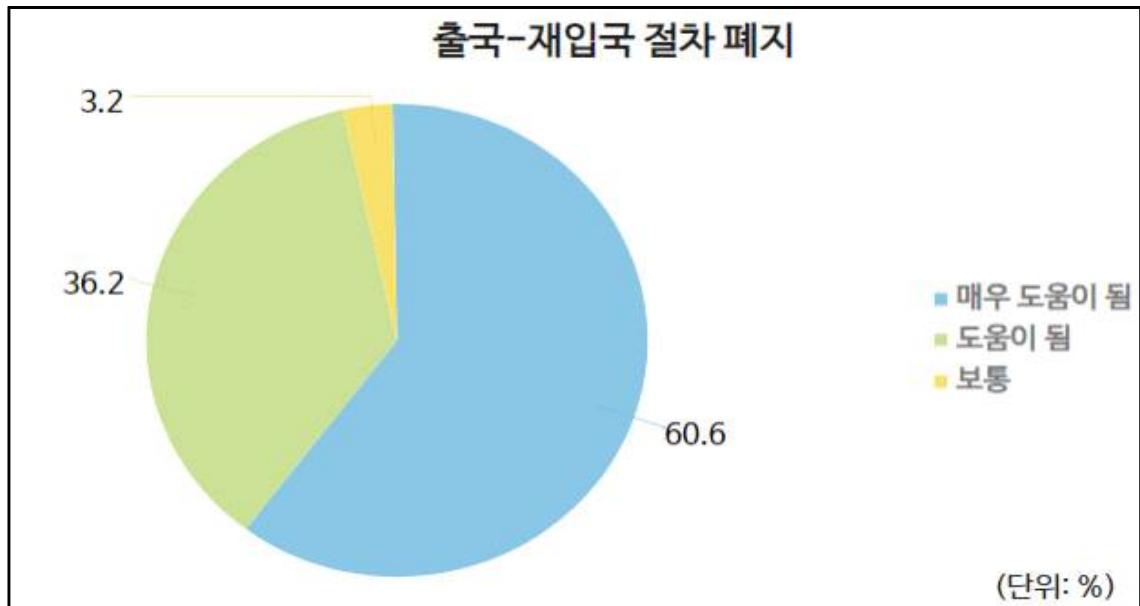
□ 사업장 변경 제도

-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,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없이(현행 14일)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입니다.
- 이 제도가 외국인력 활용 애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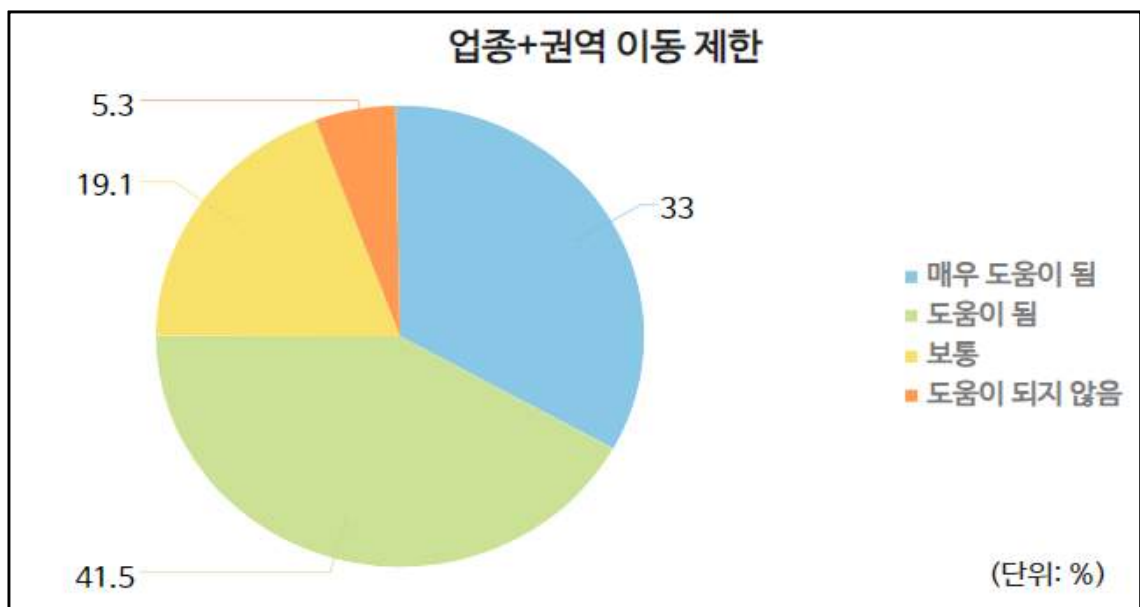
- 긍정 응답 77.6%: ‘매우 도움이 됨(40.4%)’ , ‘도움이 됨(37.2%)’
- 부정 응답 4.3%: ‘도움이 되지 않음(4.3%)’

-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 시, **출국-재입국 절차 없이** 계속 근무 가능하도록 개편 예정입니다. 이 제도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?



- **긍정 응답 96.8%:** ‘매우 도움이 됨(60.6%)’, ‘도움이 됨(36.2%)’

- 그간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내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, 앞으로는 **같은업종+같은권역**에서만 사업장 변경 허용 예정입니다. 이 제도가 외국인근로자의 이 탈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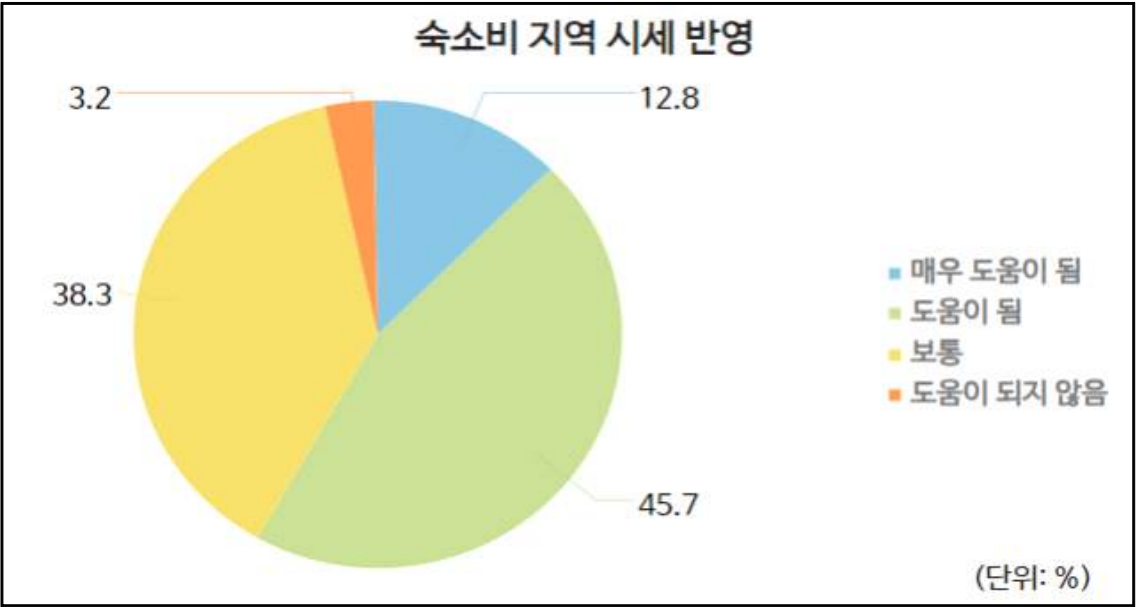


- **긍정 응답 74.5%:** ‘매우 도움이 됨(33.0%)’, ‘도움이 됨(41.5%)’

- 부정 응답 6.4%: ‘도움이 되지 않음(5.3%)’, ‘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(1.1%)’

□ 숙소비 결정 기준

- 월 통상임금의 8~20% 수준의 숙소비 징수 상한 기준 대신, 부동산 실거래가 등 지역 시세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기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. 이 제도가 관리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?



- 긍정 응답 58.5%: ‘매우 도움이 됨(12.8%)’ , ‘도움이 됨(45.7%)’
부정 응답 3.2%: ‘도움이 되지 않음(3.2%)’

※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 (<http://ansancci.korcham.net>)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※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안산상공회의소 가치창조팀 【T. 031-410-3030(#234)】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보고서에 대하여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,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표의견이 아니며,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.

- 발행인: 이 성 호
- 발행처: 안산상공회의소
- 발행일: 2023. 09. 12.

[비매품]